

캐스퍼 '질주'...경차 시장 '봄바람' 부나



현대차 '캐스퍼'



기아 '모닝'

광주글로벌모터스 누적 생산 2만대 돌파
지난달 신차 등록 3304대...국내 경차 1위
기아 '레이 1인승 밴'·모닝·GM 스파크...
세계 헤택·유류세 환급 등 시장 확대 기대

'광주형 일자리' 기업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생산하는 현대자동차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위축되던 경차시장이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큰 차'를 선호하는 분위기 속에 판매가 감소하던 경차는 캐스퍼 출시 이후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데다, 최근 공간 활용도를 높인 신차가 속속 출시되고 있다. 여기에 올해 경차 세계 헤택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의 경차 점유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4일 카이즈데이터연구소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국산과 수입차를 포함해 11만4079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5.1% 감소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소형차는 9520대로 10.0% 줄었고, 준중형차도 2만7065대로 11.4%가 감소했다. 3만747대가 팔린 중형차는 무려 24.8%나 급감했고, 준대형(1만8225대)과 대형(1만8292대) 각각 17.3%와 15.4%씩 줄었다. 반면 경차만 1만230대로 17.3% 증가세를 기록했다.

경차의 판매 증가는 단연 캐스퍼가 이끌었다. 캐스퍼는 지난 1월 3948대가 판매돼 전체 경차 판매의 38.6%를 차지했다. 지난달에도 3304대가 판매돼 올해 누적 판매량 7252대를 기록했고, 2개월 연속 3000대 이상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사전계약 첫날 1만8940대 계약을 이뤄 침체의 길을 걷던 경차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고됐던 캐스퍼는 지난해 9월 출시 당월 208대 판매 이후 10월 2506대, 11월 3965대, 12월 4127대 등 지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캐스퍼의 흥행으로 국내 경차시장도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경차를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경차의 단점으로 꼽혔던 공간활용도 높은 모델을 출시하는 등 국내 자동차업체의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기아는 지난달 기아는 다목적 모델로 활용이 가능한 '레이 1인승 밴'을 출시했다. 레이 1인승 밴은 국내 최초 1인승 차량으로, 특수차량을 제외하고 국내 승용차와 상용차 모델 가운데 1인승으로 인증 받은 것은 레이가 처음이다. 레이 1인승 밴은 기존 2인승 밴 모델에서 동승석

시트를 제거하고 하단에 별도 수납공간을 마련하는 등 최대 화물 적재용량을 1628 l로 확대하는 등 최대 공간성을 무기로 경차시장의 왕좌 자리를 노리고 있다. 이에 맞서 캐스퍼도 캐스퍼 밴 모델을 출시했다. 캐스퍼의 디자인과 안전·편의사항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기존 2열 시트 공간을 비워내 940 l의 적재용량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 한국지엠도 대표적인 경차 모델인 스파크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기아도 지난해 새 엠블럼을 적용한 연식 변경 모델 2022년형 모닝을 출시하며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특히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가 올해부터 2024년까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됐고, 경차의 유류세 환급 한도 역시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세계 헤택이 확대됨에 따라 경차시장 확대 및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캐스퍼의 인기 속에 캐스퍼를 양산하고 있는 GGM의 누적생산량이 6개월여 만에 2만대를 돌파하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에

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날 GGM에 따르면 지난해 9월15일 첫차 생산을 시작으로 지난해 연말 목표인 1만2000대 생산을 달성한 데 이어 이달 11일 누적 생산 2만대(2만343대)를 넘어서는 등 순항하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시간당 생산대수(UPH)를 현재의 22대 수준에서 25.7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라는 점에서 올해 생산목표인 5만대 달성은 무난히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간당 생산 대수가 25.7대에 이르면 현재 월 3900대 수준에서 4500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시간당 생산 대수를 높일 수 있는 것은 GGM이 지난달 16일 생산 현장에 투입될 기술직 신입사원 70여명 등 80여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인력을 확충했고, 기존 인력의 기술 수준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캐스퍼의 생산 합격률을 지난해 말 이미 90%를 넘기는 등 업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확



기아 '레이 밴'

보고 있다는 게 GGM의 설명이다. GGM은 현재 66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2교대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등 분사 인력은 1000여명 내외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2022 하반기, 탄탄한 '기본'...정숙은 '덤'

현대차 연식 변경 모델 출시
스마트·모던·인스퍼레이션 트림별
기본 사양 늘리고 선택 폭 확대
하이브리드 등 1866만~2806만원



현대자동차는 하반기의 연식 변경 모델 '2022 하반기' (사진)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현대차에 따르면 2022 하반기는 기존 차량도어트림에 흡음재를 보강해 정숙성을 향상시키고, 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각 트림별로 기본 사양과 선택 사양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기본 트림인 스마트에선 기존 선택사양으로 운영된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를 기본으로 적용했다.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와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 하차 경고 등이 포함된 '스마트센스III'와 고객 선호도가 높은 17인치 휠을 선택 사양에 추가했다. 모던 트림에서는 기존 선택사양인 10.25인치 내비게이션과 앞좌석 통풍시트 등 인기 사양을 기본 적용해 상품 경쟁력을 높였다.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에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를 기본으로 적용해 정숙성을 강화하고, 동승석 전동시트,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 등 고객 만족

도가 높은 첨단 편의·안전사항을 기본 탑재해 상품성을 향상시켰다. 또 인스퍼레이션 트림에 LED 실내 램프를 기본 적용하고 실내 컬러에 베이지를 새로 추가해 디자인의 고급감을 강조했다. 2022 하반기의 가격은 트림별로 ▲가솔린 1.6 1866만원~2515만원 ▲1.6LPi 2005만원~2641만원 ▲하이브리드 2346만원~2892만원이다. N라인(가솔린 1.6 터보)은 2318만원~2806만원이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2022년형 하반기는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해 상품성을 강화했으며 이를 통해 준중형 세단 시장 내 최강의 입지를 공고히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의 글로벌 베스트셀링카인 아반떼는 우수한 상품성과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2021 북



미 올해의 차'에 오른데 이어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협협회(IIHS)로부터 우수한 충돌 안전 및 예방 성능을 갖춘 차에 부여되는 '톱 세이프티 픽'(Top Safety Pick) 등급에 선정된 바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렉서스, 에어컨 점검하고 무료 소독하세요

렉서스코리아는 봄철 차량 관리와 안전 운전을 위해 다음달 2일까지 '2022 렉서스 스프링 리프레시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캠페인 기간 전국 31개 렉서스 공식 딜러 서비스 센터에 입고하는 모든 고객에게 에어컨 점검 서비스와 자동차 살균 소독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30만원 이상 유상수리 고객에게는 렉서스 데스크패드를 증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캐빈 에어 필터와 에어 클리너 엘리먼트, 에어 케어 서비스, 엔진 플러시 첨가제, 와이퍼 러버 및 블레이드 등에 대해서는 부품가격 및 공임의 1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렉서스코리아 관계자는 "캠페인 기간 동안 렉서스 공식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차량 점검을 통해 에어컨 점검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DB·현대해상 차보험료 인하

삼성화재에 이어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도 내달 자동차 보험료를 내린다. 1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각각 1.3%와 1.2% 인하하기로 했다. DB손해보험은 4월16일, 현대해상은 4월13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인하된 보험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삼성화재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1.2% 내리기로 손보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발표된 바 있다. 삼성화재는 4월11일부터 적용한다. /연합뉴스

쉐보레 첫 전기 SUV '볼트 EUV' 달린다

TV광고 등 본격 마케팅

한국GM의 글로벌 브랜드 쉐보레는 첫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볼트 EUV'의 올해 2분기 고객 인도를 앞두고 본격적인 마케팅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쉐보레는 먼저 배우 이제훈과 이동휘가 출연하는 TV 광고를 이날 공개했다. 2편의 에피소드로 나눠진 광고는 두 배우가 볼트 EUV의 특징과 장점을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전달하는 형태로 구성됐다고 쉐보레는 전했다. <사진> 쉐보레는 또 '전기차 100년 당신을 위해, 모두를 위해'라는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열기 위한 슬로건도 공개했다. 쉐보레는 TV 광고와 함께 디지털, 소셜미디어 채널 등을 활용해 소비자와 적극적인 마케팅 소통을 할 계획이다. 쉐보레는 볼트 EUV와 함께 새로운 디자인과 프리미엄 사양을 적용한 '2022 볼트 EV'도 2분기부터 고객 인도에 들어간다. 신형 볼트 EV는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제너럴모터스(GM)의 전략 모델이다. 쉐보레는 앞서 지난해 8월 2022 볼트 EV와 볼



트 EUV의 사전예약을 받으며 출시를 예고했었다. 하지만 배터리 제조 결함 탓에 GM이 볼트 EV의 전 모델을 리콜하기로 하면서 차량 인도가 미뤄졌다. 쉐보레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멈췄던 북미 공장의 재가동 일정이 최근 결정됨에 따라 올해 2분기에 차량 인도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두 차량 모두 신형 배터리 모듈이 탑재된 LG 에너지솔루션의 66kWh 대용량 배터리 패키지를 적용했다. 1회 충전 시 주행 거리(환경부 인증 기준)는 볼트 EV가 414km, 볼트 EUV가 403km이다. /연합뉴스



토요타, 봄 맞이 전 차종 시승회

토요타코리아는 전국 25곳 토요타 공식 서비스센터와 딜러 전시장에서 '2022 토요타 스프링 리프레시 서비스 캠페인'과 '봄 타기 좋은 토요타' 전 차종 시승회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서비스 캠페인을 통해 다음달 2일까지 전국 토요타 딜러 서비스센터에 입고하는 모든 고객에게 에어컨 점검 서비스와 자동차 살균 소독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 ▲캐빈 에어 필터 ▲에어 클리너 엘리먼트 ▲에어 케어 서비스 ▲엔진 플러시 첨가제 ▲와이퍼 러버와 블레이드 등에 대해 부품가격 및 공

임 15% 할인 혜택을 제공, 30만원 이상 유상수리 고객에게는 차량용 방향제를 증정한다. 토요타의 대표 세단 캠리를 비롯해 아반떼 하이브리드, 시에나 하이브리드, 프리우스 등 토요타의 전 차종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봄 타기 좋은 토요타' 시승회도 다음달 30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시승회에 참여한 고객 중 다음달 29일까지 캠리를 예약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총 20명에게 '삼천리 집이식 미니벨로 자전거'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